

‘의미적 장(semantic field)’ 이론에 의한 한국어와 독일어 비교 연구

김두규
(우석대학교)

Kim, Du-Gyu. 2000.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German According to the Semantic Field Theory. *Linguistics* 8-1, 191-2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some words in Korean and German, based on the semantic field, in order to show the differences of two languages and their reasons. The objects of comparison in semantic field are as follows: ‘go’, ‘die’, ‘come’, ‘words of family relation’, ‘academic grade’ and ‘words of mutual designations’. For example, the semantic field ‘go’ in German is composed of three divisions, whereas the semantic field ‘go’ in Korean is composed of only one sec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reason of this difference.(Woosuk University)

1. 서론

의미적 장(semantic field)은 “무엇인가 의미적 단일체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집단을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고 이익환(1984)은 영어학에서의 의미적 장 이론을 정의한다. 의미적 장은 독일인 사상가 Wilhelm von Humbolt의 언어 이론을 20세기 초, 특히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서 발전시킨 이론이다.¹⁾

독어학에서는 ‘의미적 장 이론’보다는 ‘낱말 밭 이론(Wortfeld Theorie)’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허발(1985), 홍승우(1988) 등에 의해 언어학계에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그 연구가 소강상태에 빠진 듯하다.

그와 같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의미적 장 이론’의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이 이론이 가장 왕성하게 전개될 때가 바로 히틀러의 집권시기와 맞

1) 의미적 장 이론은 흄볼트의 언어이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흄볼트 학파’라고도 한다.

물려 있고, 히틀러가 강조하였던 ‘민족’, ‘조국’, ‘운명공동체’, ‘모국어’ 등 국수주의적 색채를 ‘의미적 장’이론이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의미적 장 이론을 완성시킨 Leo Weisgerber의 주요 논저들의 제목만 보아도 당시 나치 이론의 색채를 짙게 풍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모국어와 정신형성 Muttersprache und Geistesbildung”(1929), “모국어의 민족주의 힘”(1939) 등은 그 출간년대와 제목뿐만 아니라 그 핵심내용에 있어서 민족 혹은 모국을 강조하였던 당시 나치 이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Leo Weisgerber은 자신의 “모국어적 중간세계의 의식화Das Bewusstmachen der muttersprachlichen Zwischenwelt”(Leo Weisgerber 1971에서 언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언어란 이 지상에서 일반적인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단지 모국어로써, 즉 어떤 특정한 언어의 표현으로서, 이를테면 도이치, 프랑스라는 한 특정한 언어 공동체와 결부된 도이치말로써, 프랑스 말로써 우리와 마주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제약성을 갖는 의미적 장 이론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나 비판을 가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더더구나 의미적 장 이론을 여기서 소개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역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의미적 장 이론이지만, 다른 외국어와의 비교 연구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언어가 세계를 반영한다면 의미적 장 이론을 전개하였던 언어학자들의 주장대로 모국어가 자기 고유 민족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할 것이다. 의미적 장 이론에 따라 하나의 낱말이 어떠한 대상들을 지칭하고 있는가를 두 개 나라의 말을 비교 고찰할 때 각각의 모국어에 갖는 한계와 다른 외국어와의 차이점 역시 드러난다.

예컨대 아래 예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어와 독일어에서의 ‘가다’를 의미적 장 이론에 따라 비교분석하면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한국어

- (1) a. 나는 서울 간다.(걸어서 갈 경우)
- b. 나는 서울 간다.(기차, 버스,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 c. 나는 서울 간다.(비행기를 타고 갈 경우)

걸어서 가든,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간다’라는 동일한 표현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독일어의 경우 교통수단의 차이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다르다.

독일어

- (2) a. Ich gehe nach Seoul.(걸어서 갈 경우)
- b. Ich fahre nach Seoul.(기차, 버스,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 c. Ich fliege nach Seoul.(비행기를 타고 갈 경우)

(1)과 (2)의 예문에서처럼 의미적 장 이론에 따라 한국어와 독일어에서 몇 가지 대상을 선정하여 비교할 때 다양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이때 ‘간다’라는 의미적 장(semantic field)이 한국어에서는 아무런 구획(區劃)이 없는 반면, 독일어에서는 ‘gehe’, ‘fahre’, ‘fliege’ 등 3 부분으로 구획되어진다.

본론에서는 그러한 차이점을 드러내게 한 뒤 결론에서 그러한 차이점의 원인과 이유를 추론하도록 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본론

2.1. 의미적 장의 구획이 한국어보다 독일어에서 더 세분된 경우

(1)과 (2)의 비교는 독일어에서 한국어보다 의미적 장이 세분화된 예를 보여준다. 그와 같은 예는 ‘죽다’라는 의미적 장에서도 보여준다.

한국어

- (3) a. 사람이 죽다.
- b. 동물이 죽다.
- c. 식물이 죽다.

- (4) a. Der Mensch stirbt.(사람이 죽다)
- b. Das Tier verendet.(동물이 죽다)
- c. Die Pflanze eingeht.(식물이 죽다)

(3)과 (4)의 예문은 ‘죽다’를 표현하는 낱말이 한국어에서는 사람,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하나의 표현방법밖에 없지만 독일어에서는 각기 다르다. 물론 여기에서 한국어 '죽다'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방법, 예컨대 '餓다', '뻘지다' '식다' '밥숟갈 놓다'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비어나 저속어이기 때문에 고찰 대상이 아니다. 독일어의 경우도 그와 같은 비어나 저속어의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앞에서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식물 세 가지의 경우 그 죽음의 표현에 있어서 독일어와 한국어에서의 차이점을 지적하였는데, 다시 사람의 죽음의 방식에 있어서도 의미적 장 이론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어와 독일어에서 현격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

- (5) a. 사람이 굶어 죽다.
- b. 사람이 물에 빠져 죽다.
- c. 사람이 얼어 죽다.
- d. 사람이 전쟁에서 죽다.
- e. 사람이 숨이 막혀 죽다.
- f. 사람이 목말라 죽다.

독일어

- (6) a. Der Mensch verhungert. (굶어 죽다)
- b. Der Mensch ertrinkt. (물에 빠져 죽다)
- c. Der Mensch erfriert. (얼어 죽다)
- d. Der Mensch faellt. (전쟁에서 죽다)
- e. Der Mensch erstickt. (숨막혀 죽다)
- f. Der Mensch verdurst. (목말라 죽다)

(5)와 (6)의 경우 죽음의 구체적인 원인을 한국어에서는 '죽다'라는 단어 앞에 다른 단어로써 설명을 해주어야만 가능한데 반해 독일어의 경우 '죽음의 원인과 죽다'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형성된다.

여기에서 독일어의 경우 '죽다'라는 개념이 홀로 쓰이지 않고 죽음의 원인지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언어조차도 하나의 단어로 표현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죽음의 여러 형태나 원인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로라는 관념이 우선적이다. 그 다음에 '왜 죽었지?',

'어떻게 죽었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제시된다. 따라서 죽음의 원인이 별개의 단어로 표현된다.

한국어와 독일어의 이러한 차이가 언어의 구조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죽다'에 대한 관념상의 차이--궁극적으로는 의미론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학제간의 논의와 연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와 (6)의 예 말고도 독일어의 경우 인간 죽음의 방식이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단어가 있다. 예컨대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다(erloeschen)', '참혹하게 죽다(abkratzen)', '잠자듯 편안하게 죽다(entschlafen)' 등 Weisgerber (1971, 184)는 '죽다'의 의미적 장을 단층구획(분절)과 다층구획(분절)으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시켰는데 한국어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의미적 장 구획이다.

단층적 구획

- (6-1) a. sterben - verenden - eingehen
 b. verhungern - umkommen - erliegen - zugrundegehen
 - fallen - erfrieren etc.
 c. heimgenhen - verrecken - abkratzen - verroecken -
 erloeschen - verscheiden - ableben - einschlummern
 - entschlafen - hinuebergehen

(6-1)의 a. b. c는 '죽다'라는 의미적 장이 a에서는 3구획, b에서는 6구획, c에서는 10구획으로 세분화 한 것으로 그 경계가 서로 중복 되지 않고 정확하게 나뉘어 진다.

다층적 구획

(6-2)

a	b	c
---	---	---

다층적 구획에서는 '죽다'라는 생명의 종식 현상에 대한 의미적

장이 다층적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구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독일어에서 '죽다'라는 의미적 장이 한국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구획된 원인이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할 수는 없다. 비록 한국어의 역사가 500년이 넘는다 하지만 해방이후에야 비로소 한글 전용과 그로 인한 한글 발달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독일어에서는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서번역 이래 괴테와 같은 세계적 작가 및 사상가에 의한 독일어 집필과 그로 인한 사물을 지시하는 어휘수의 풍부화와 세련화 덕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죽다'라는 의미적 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는 '오다'의 의미적 장에서도 독일어가 한국어보다 탁월하게 발달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다'의 의미적 장의 경우 다음과 같다.

한국어

- (7) a. 사람이 온다.
 b. 눈이 온다.
 c. 비가 온다.

독일어

- (8) a. Man kommt.
 b. Es schneit.
 c. Es regnet.

(7)의 경우 사람이건 사물이건 '오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온다'라는 단 하나의 표현 양식 밖에 없다. 또한 '오다'의 주어의 경우 사람이거나 사물이나 상관없이 '사람이', '눈이', '비가' 등처럼 그대로 쓰여진다.

반면 (8)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독일어의 경우 우선 사람과 사물의 경우 '오다'의 표기가 다르고, 주어표현 양식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물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사람이 올 때에는 'kommen', 눈이 올 때에는 'schneien', 비가 올 때에는 'regnen'이라는 전혀 다른 표기가 사용된다. 또한 그 주어의

표현 방식에서 있어서도 사람일 경우에만 'man'과 같이 직접 그 주체가 사용되며, 사물일 경우 'es(영어의 it)'라는 비인칭 주어가 사용된다.

여기서 한국어와 독일어의 큰 차이점은 한국어의 경우 동사 '온다'라는 단어만 듣거나 읽어서는 사람이 오는지, 눈이 오는지 분별할 수 없다. 반면 독일어의 경우 동사 'schneien', 'regnen'만 듣거나 보고서도 그 주체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사 '오다'에 대한 '의미적 장'이 독일어에서 훨씬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고 생각한다.

(1)에서 (8)까지 보여준 예들은 모두 독일어가 특정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가 한층 발달 또는 다양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독일어의 특징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한국어가 모두 어휘력에서 독일어에 뒤진다는 주장이 되지는 못한다. 독일의 의미적 장 이론을 주장 학자들이 곧잘 예시하는 친족어(친척어)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준다.

2.2. 의미적 장의 구획이 독일어보다 한국어에서 더 세분된 경우

한국어

- (9) a. 대개 결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 - 삼촌
 b. 결혼한 아버지의 남동생 - 작은 아버지(숙부)
 c. 아버지의 남자 형 - 큰 아버지(백부)
 d. 어머니의 남자 형제 - 외삼촌
 e. 아버지의 사촌 형제 - 당숙
 g. 이모의 남편 - 이숙(이모부)
 h. 고모의 남편 - 고숙(고모부)

독일어

- (10) a. 대개 결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 - Onkel
 b. 결혼한 아버지의 남동생 - Onkel
 c. 아버지의 남자 형 - Onkel
 d. 어머니의 남자 형제 - Onkel
 e. 아버지의 사촌 형제 - Onkel
 g. 이모의 남편 - Onkel
 h. 고모의 남편 - Onkel

한국어의 경우 (9)에서 적시된 것 이외에도 나와 삼촌 관계에 있는 남자 친척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 있으나 독일어서는 단 하나의 단어 즉 Onkel로 간단하게 표현된다.

독일어 회화에서 상대방으로부터 Onkel이라는 단어만 듣고서는 친족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만약 구체적으로 그 친족관계를 설명하려면 (10)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한다.

- (10-1) a. 대개 결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 - Onkel
 der noch nicht verheiratete jungere Bruder des Vaters
- b. 결혼한 아버지의 남동생 - Onkel
 der verheiratet jungere Bruder des Vaters
- c. 아버지의 남자 형 - Onkel
 der verheiratete aeltere Bruder des Vaters
- d. 어머니의 남자 형제 - Onkel
 der Bruder der Mutter
- e. 아버지의 사촌 형제 - Onkel
 der Vetter des Vaters
- g. 이모의 남편 - Onkel
 der Mann der Schwester der Mutter
- h. 고모의 남편 - Onkel
 der mann der Schwester des Vaters

(9)과 (10)에서 '나와 친족관계가 있는 남성들을 표현하는 친족어'를 살펴 보았다. '나와 친족관계가 있는 여성들의 친족어'를 두 나라말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 (11) a. 아버지의 여자 형제 - 고모
- b. 아버지의 사촌 여자 형제 - 당(중)고모
- c. 아버지의 형의 아내 - 큰어머니(백모)
- d. 아버지의 동생의 아내 - 작은어머니(숙모)
- e. 어머니의 여자 형제 - 이모
- f. 외삼촌의 아내 - 외숙모

독일어

- (12) a. 아버지의 여자 형제 - Tante
- b. 아버지의 사촌 여자 형제 - Tante
- c. 아버지의 형의 아내 - Tante
- d. 아버지의 동생의 아내 - Tante
- e. 어머니의 여자 형제 - Tante
- f. 외삼촌의 아내 - Tante

(11)와 (12)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 '고모', '당고모',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 '외숙모' 등 7개의 상이한 단어가 독일어에서는 'Tante'라는 단어 하나로 간단히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독일어 회화에서 'Tante'라는 말만 상대방으로부터 들을 때, 혹은 문장 속에서 'Tante'라는 단어를 접할 때 그 구체적 혈연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묻거나 문장 전후의 맥락을 살펴서 나름대로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Tante'가 누구인지를 설명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상대방은 다음 (12-1)과 같이 풀어서 설명을 해야한다.

- (12-1) a. 아버지의 여자 형제 - Tante
 die Schwester des Vaters
- b. 아버지의 사촌 여자 형제 - Tante
 die Kusine des Vaters
- c. 아버지의 형의 아내 - Tante
 die Frau des aelteren Bruders des Vaters
- d. 아버지의 동생의 아내 - Tante
 die Frau des juengeren Bruders
- e. 어머니의 여자 형제 - Tante
 die Schwester der Mutter
- f. 외삼촌의 아내 - Tante
 die Frau des Bruders der Mutter

(9)에서 (12-1)까지 나타난 한국어와 독일어와의 친족어의 장(field)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경우 그 장이 다양하게 구획된 반면, 독일어의 경우 친족어라는 의미적 장에 구획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독일어에서 'Tante'와

'Onkel'로 포괄되는 대상들이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분류, 구획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어의 경우 'Tante'와 'Onkel'의 구별 근거가 남녀의 생물학적 성(性)에 의한 구분이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남녀의 성에 의한 구분말고도 직계 가족여부, 연령의 많고 적음 여부 그리고 중심점이 되는 화자(혹은 나)의 생물학적 성이 그 기준으로 작용한다.(홍승우 1988).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기준점이 그렇게 다양하게 친족어가 분화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무슨 까닭일까 하는 의문은 두 나라 언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 나라 역사, 문화, 사회경제체제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한국어에서 친족어가 발달 혹은 세분과정은 과거 유교문화권에서의 남존여비(男尊女卑) 관념, 장자(長子)위주의 종법(宗法)제도, 자기보다 한 살만 많아도 이를 존중해야한다는 장유유서(長幼有序) 관념이 언어생활을 규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즉 사회제도의 상이함에 따라 의미론적 장(semantic field)안의 구획(區劃)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어와 한국어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적 장이 (9)에서 (12-1)까지의 예에서처럼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등(不等)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다. 독일어와 한국어에서 동일한 구획을 갖는 의미적 장들 또한 적지 않다.

2.3. 의미적 장이 독일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동일한 구획을 갖는 경우

그 대표적인 예로 독일과 한국의 의미적 장 이론을 전개하는 학자들(J. Trier 1931, L. Weisgerber 1971, 홍승우 1988)이 드는 것이 성적평가에 있어서의 의미적 장이다. Jost Trier, Leo Weisgerber 그리고 홍승우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성적 평가의 경우 다음과 세분화된 구획으로 성적 평가에 관한 의미적 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독일어

(13) sehr gut - gut - genuegend - mangelhaft - ungenuegend

한국어

(14) 수 - 우 - 미 - 양 - 가

(13)과 (14)의 예에서 보여준 한국어와 독일어의 성적등급 방법은 모두 5단계로서 동일한 구획을 갖는다. 이때 각각의 성적 등급 예컨대, 독일어의 gut(좋은)과 한국어의 '우(넉넉할 優)'는 사전적 의미만 갖고서는 어떤 등급의 성적인지 알 수 없다. 예컨대 한 학생이 'gut'이라는 성적을 받았을 때 독일어 성적 체계가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졌음과 gut은 서열상 2번째에 위치한다는, 즉 구성요소의 위치와 수를 모르고 단순히 고립시켜서는 gut이라는 성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불가능하다, 한국어의 성적평가에 관한 의미적 장에서도 '우'가 서열상 5개 등급 가운데 두 번째에 속한다는 사전적 지식 없이는 '우'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Weisgerber나 홍승우의 견해이다. 물론 성적 평가의 등급에 있어서 독일어나 한국어에서 꼭 5등급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적게는 2단계에서 많게는 10등급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성적평가에 관한 의미적 장은 독일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적 장의 구획이 동일하다'라는 결론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성적 평가에 관한 의미적 장의 형식적 구획이 아니라, 그 의미적 장을 형성하는 각 구획에 사용된 한국어와 독일어의 낱말적 의미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13)과 (14)에 표기된 의미적 장의 각 구획의 낱말의 의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5)

독일어	한국어
sehr gut(아주 좋다)	수(秀= 빼어나다)
gut(좋다)	우(優= 넉넉하다)
genuegend(충분하다)	미(美= 아름답다, 잘하다)
magelhaft(부족하다)	양(良= 좋다)
ungenuegend(불충분하다)	가(可= 괜찮다)

(15)에서 독일어의 경우 의미적 장의 구획을 형성하는 5등분의 낱말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그 낱말의 의미만 보고서도 충분히 성적 평가의 등급을 알 수 있다. sehr gut이 gut보다 좋다라는 것은 분명하며 genugend보다 ungenugend가 더 안 좋은 성적을 표기함을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에서 의미적 장의 구획을 전제하지 않고 예컨대 수(秀)와 미(美)를 비교한다면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또한 양(良)과 우(優)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즉 독일어에서는 성적 평가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성적의 좋고 나쁨을 표현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 상당히 외교적인 수사법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언어가 한 사회의 시대의식을 반영한다고 가정할 때, 이와 같은 한국어의 성적 등급에 관한 의미적 장은 성적평가 대상자에 대해 대단한 예의와 배려의 정서가 나타난다. 성적 평가에 관한 의미적 장이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의 다른 의미적 장과 상당히 이질적 색채를 드러낸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는 한국인의 '선비의식'이다. 전통적으로 지식인 혹은 선비에 대한 예우가 각듯하였던 탓에 비록 배우는 후학 혹은 제자이긴 하지만 그들에 대한 성적평가를 할 때에는 그들의 체면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 분위기가 신학문 도입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타인의 체면을 배려하는 언어 행동은 한국어에서 극히 예외적이다. 신분이나 계층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 가능한 것이었지, 과거 봉건제도하의 신분과 계층이 다른 사이에서의 언어는 엄격한 상하관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봉건사회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인 지금까지도 그 대표적인 예가 호칭문제에 관한 의미적 장에서이다. 이를 한국어와 독일어에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²⁾

독일어

(16)

- a. 친구
- 호칭 “너”(du) b. 집안 식구(조부모, 부모 형제)
- c. 직장 동료

2) 호칭에 관한 의미적 장은 2인칭, 3인칭과 이에 대한 단수, 복수 등을 모두 나누면 또 하나의 논문의 분량이 될 정도로 복잡하므로 2인칭 단수의 경우만 다루기로 한다.

- d.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e. 상호 모르는 성년들 사이
- 호칭 “당신”(존칭) Sie f. 사제지간(18세 이상)
- g. 미성년자가 모르는 성년들에게

한국어

- (17) a. 부모와 형, 누나가 자식 혹은 동생에게
- 호칭 “너” b.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 c. 직장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 d. 향렬이 높은 일가가 향렬이 낮은 사람에게
- e. 친구사이에서

- 존칭을 할 경우 f.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 g. 연하자가 연상자에게
- h. 향렬이 낮은 자가 향렬 높은 연하자에게

독일어와 한국어의 호칭에 관한 의미적 장은 (1)에서 (15)에서는 다른 복잡한 현상을 보여준다. (1)에서 (15)까지의 한국어와 독일어의 비교는 부분적으로 뚜렷한 대조를 보여줌에 반해 호칭에서의 의미적 장의 비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다소 복잡하다.

독일어의 경우 호칭 “너”라는 의미적 장을 구획하는 기준점이 상호 평등 관계를 전제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 여전히 봉건주의적 상하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16) b에서 가족 구성원 쌍방 간에 “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같은 의미적 장인 한국어에서는 (17) a에서 보여 주듯 쌍방 간이 아니라 일방적이다.

독일인 가정에서는 가장 친한 사람끼리 서로 말을 터 “너”라고 호칭을 한다. 당연히 가장 친한 관계는 가족 사이이므로, 가족 상호간에는 “너”라는 호칭을 서로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너”라고 할 뿐만 아니라, 손자가 할아버지에게도 “너”라고 부른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불가능한 호칭관계이다. 한국어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너”라고 호칭하는 반면, 손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존칭을 해야 한다.

(16) c와 (17) c의 예는 한국어의 경우 직장에서 나이가 많거나 입사 선배 혹은 상관일 경우 존칭을 해야 하는 반면, 독일어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에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는 상하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대부분 서로 말을 트고 “너”라는 호칭을 한다. 같은 목적의식을 갖는 친밀한 동료의식이 더 중시되기 때문이다.

독일어의 경우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호칭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상호존칭을 해야 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상호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어리게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의미적 장의 구획에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20세기 이전의 독일어에서도 한국어와 같은 호칭이 지배적이었음을 감안하면, 독일어의 경우 그만큼 언어의 민주화가 선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언어학적 접근 등 다양한 학제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결론

서론에서 제시하였던 문제제기와 방법론, 즉 의미적 장이론에 따라 한국어와 독일어에서 ‘간다’, ‘죽다’, ‘온다’, ‘친족어’, ‘성적 등급’ 및 ‘호칭’에 관한 의미적 장의 구획을 살폈다.

그 결과 한국어의 ‘간다’라는 의미적 장은 ‘간다’라는 단 하나의 표현밖에 없는 반면, 독일어의 경우 ‘gehe’, ‘fhare’, ‘fliege’ 등 세 가지 구획으로 그 의미적 장이 구성됨을 살폈다. 한국어의 ‘죽다’라는 의미적 장의 경우도 단 하나의 표현 밖에 없는 반면, 독일어의 경우 크게는 ‘사람이 죽다(sterben)’, ‘동물이 죽다(verenden)’, ‘식물이 죽다(eingehen)’ 등 3 개의 구획으로 나뉘고, 이것은 다시 더 세분되어 ‘굶어 죽다(verhungern)’, ‘물에 빠져 죽다(ertrinken)’, ‘얼어죽다(erfrieren)’ 등 다양하게 세분화된 구획들로 ‘죽다’의 의미적 장이 이루어짐을 보았다.

이 두 가지의 의미적 장의 경우 독일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사물을 표현하는데 정확과 세밀한 어휘와 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어가 문학 혹은 철학언어로서 수 백년 동안 발달해온 결과라고 그 원인을 말할 수 있다.

반면 친족어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삼촌뻘에 해당되는 친족어의 의미적 장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외삼촌', '이숙', '고숙' 등으로 세분되어 구획되는데 반해, 독일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단 하나 즉 'Onkel' 밖에 없어 친족어에 관한 독일어 어휘의 빈약함을 드러내 보였다. 한국어에서는 여전히 유교적 가부장제 관념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친족어의 다양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호칭에 관한 의미적 장의 경우 한국어와 독일어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데, 서로 말을 트고 지낼 때 부르는 "너"를 한국어에서는 친구사이 이외에는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호칭으로 명백히 신분사회, 혹은 위계질서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독일어의 경우 "너"라는 호칭은 가장 가까운 가족 상호간, 친구 직장 동료 혹은 뜻을 같이하는 동지 사이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이 의미적 장 이론에 따른 한국어와 독일어의 비교 연구는 앞으로 다양한 단어의 의미적 장에 확대되어 연구되어진다면, 언어에 투영된 시대의 잔영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한국어와 독일어와의 비교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와 영어의 의미적 장 이론에 따른 연구 역시 많은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병찬. 신수송. 1983. *독어학 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이익환. 1984. *현대의미론*, 서울: 민음사
홍승우. 1988. *언어학의 의미론 입문*. 서울: 청록출판사
허발. 1986. *언어내용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Gipper, Helmut. 1984. *Der Inhalt des Wortes und die Gliederung der Sprache, in: Der grosse Duden. Bd. 4: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Mannheim/Wien/ Zuerich: Duden, 502-594.*
Hundsnerscher, Franz. 1971. *Neuere Methoden der Semantik. Eine Einfuehrung anhand deutscher Beispiele*, Tuebingen: Niemeyer.
Weisgerber, Leo. 1929. *Muttersprache und Geistesbildung*, Goettingen.
Weisgerber, Leo. 1939. *Die volkhaften Kraefte der Muttersprache*, Frankfurt a.M.: Diesterweg.
Weisgerber, Leo. 1971. *Grundzue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Duesseldorf.

206 김 두 규

565-701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인문학부

E-mail : dgkim@core.woosuk.ac.kr

Fax: +82-652-291-9312